

프로야구 2015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

환경부는 지난 2월 14일, 2015년까지 우리나라를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국무 회의에 보고하고, 물산업 육성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였다. 아직까지 물산업의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물을 최종적인 재화로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중간재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물산업'으로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폐수, 생수, 정수기, 해수담수화 등을 주요 영역으로 보면 될 것이다. 글 · 주대영 서기관 _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물산업 육성의 필요성

이번에 정부에서 물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결정한 계기는 무엇보다도 물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한다면, 국민경제를 이끄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4.6%로 추정되는 반면, 물산업은 매년 5.5%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830조원에 달하는 시장규모는 2015년이 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포춘지(誌)도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으나, 21세기는 물이 석유를 대신할 것이며 물이 국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지리적·문화적 접근성이 좋은 중국 같은 아시아지역의 물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이므로 시급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상수도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도 크게 고려되었다. 특히 국내 상수도 분야는 구조적으로 지자체와 공기업 중심을 운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시설 중복·과잉 투자 등 비효율 문제, 비경쟁적 시장체제 및 규모의 영세성으로 주요 다국적 물 전문기업에 비해 경쟁력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약한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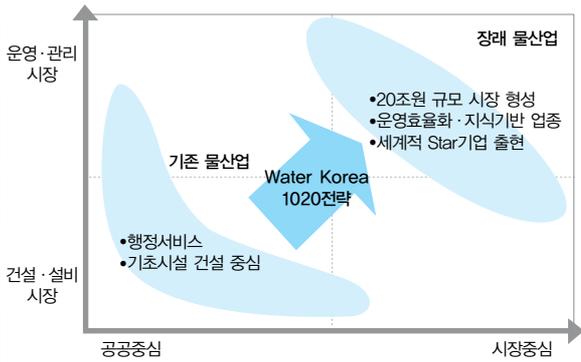
대외적으로 볼 때 상수도 산업은 표준화, 규모화, 민간참여 확대 및 소수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 등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상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국내·외 사업자간 서비스 품질에 대해 상호 비교하게 되면,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화·개방화 추세가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커진다는 점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산업 육성 비전 및 추진 방향

앞으로 정부는 물산업 강국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현재 약 11조원 규모의 물산업 규모를 내수 진작 및 해외수출을 활발히 추진하여 2015년까지 최소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물 전문기업 군을 창출하여 세계 10위권의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5,8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수출이 8조원 이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산업 육성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주체, 즉 정부, 기업 및 소비자간의 새로



〈그림 1〉 장기적인 물산업 발전 방향

운 역할분담 체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현재는 정부에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공급 및 관리·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상용화 기술을 포함한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감독 기능과 서비스 공급 기능을 점진적으로 분리하여, 정부에서는 수질관리, 물값 등 공익적 측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정수처리 및 하수처리 등 서비스 공급 기능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분담의 재조정을 통해 정부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과 수출시장 개척 지원 및 물산업 원천기술 개발 등을 위한 사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소비자의 역할 역시 더욱 강화하여 정보공개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 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상하수도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시장경쟁 원리가 적용되는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을 물산업 육성을 위해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할 중점 과제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및 선도 물 전문기업 창출

상하수도는 그간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점과 공익적인 성격 탓에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행정서비스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상하수도 산업의 구조개편이란, 공익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체제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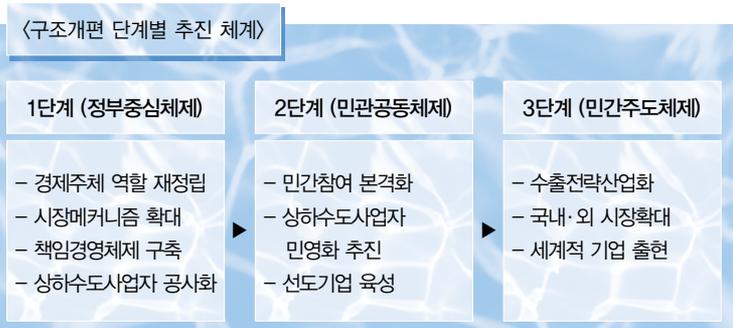
법 등 관련 제도의 혁신, 사업자 간 경쟁과 협력체계의 진흥,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는 물 전문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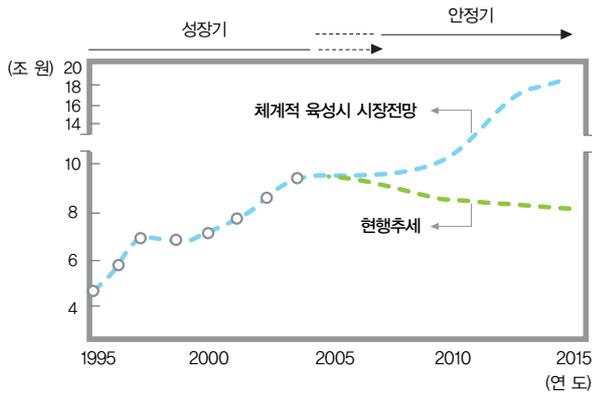
구조개편의 일정과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환경부는 직·간접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가운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도시장에 대한 민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사업자간 경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적인 통합 및 조정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168개의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하향식 인위적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자율적 구조개편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영시스템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의 구조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경영체제에 대한 검토와 구조 개선을 위한 외국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몇 가지 모델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조개편 과정에는 여러 난제가 쌓여 있으며,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의 구조개편을 추진하든 상하수도의 공익성 확보라는 정부의 책무는 지속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것이다.





〈그림 2〉 국내 물산업 시장규모 전망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상하수도 산업은 국내 물시장의 84%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이나, 기초 인프라 구축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부분이 머지않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별도의 육성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 8조원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물산업의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수관거정비 등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역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급수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 밖에 수질오염총량제,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폐수 고도처리 등 선진 물관리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신규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에 현재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에 불과한 기술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유망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처리 선진화사업' 등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물산업 미래기술개발사업(가칭)'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지능형 정수처리 기술, 유비쿼터스 기반 상하수도 관리기술, 에너지 완전순환형 하·폐수 처리기술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신기술 현장 적용시험 지원 및 상하수도 현장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실험·실습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을 활

용하여 해외 물산업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는 '상하수도기자재전시회(WATER KOREA)'를 국제적인 물산업 박람회로 육성하는 등 수출 마케팅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먹는 샘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세계 생수시장은 100년 이상 브랜드 가치를 키워 온 에비앙, 비텔, 볼빅 등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수산업은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영업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에 치중하는 형편이고, 경쟁관계에 있는 청량음료의 135배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시장규모 확대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생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해양심층수 이용 상품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맺음말

금년에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개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상하수도 공공부문의 구조개편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개별 과제에 대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며, 물산업 육성정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상하수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산업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에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지혜를 짜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로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더욱 더 큰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